

임실군, 군민안전보험 확대

뺑소니·무보험차 사망·후유장해 등 3가지 항목 추가해 총 16종 보장

임실군이 새해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를 확대, 추진하는 등 주민보호형 안전정책을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군은 기존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뺑소니와 무보험차 사망 및 후유장해 등 3가지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안전정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확대된 군민안전보험의 보장기간은 지난 1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이며, 항목이 추가된 3가지를 비롯해 총 16종이다.

이번 확대정책은 심민 군수의 "해마다 예기치 못한 농기계 등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보험 보장범위를 더욱 확대해서 시행해야 한다"는 지시에 따른 조치다.

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대중교통 이용사고, 화재 및 농기계 사고 등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보장내역은 대중교통 이용 사망·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강도 상해 사망·후유장해, 화재 폭발 및 붕괴사고 사망·후유장해, 스포츠 내 교통사고(만12세 이하), 농기계사고 사망·후유장해, 가스사고 사망·후유장해는 1,000만원까지, 익사 사망사고는 500만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올해부터 확대될 보험내역은 강력·폭행 범죄 상해사고, 뺑소니·무보험차 사망과 후유장해 등 3건으로 각각 500만원까지 보장된다.

이로써 임실군민들은 전보다 한결 더 안정된 마음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9년에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한 후 9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6,000여

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바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임실군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를 밟지 않아도 누구나 총 16종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청구서류가 발생하면 군청 안전관리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문의하고 준비서류는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을 준비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군은 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 감염병, 교통, 농기계 이용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심민 군수는 "사고는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만약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항목을 추가했다"며 "각종 사고로부터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는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사업 추진

남원시, 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청년저축계좌 대상자 모집

남원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위한 자립지원 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I),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이 일하며 목돈을 모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희망키움통장(I)은 19명, 내일키움통장 18명, 청년희망키움통장 43명, 청년저축계좌 22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희망키움통장 I·내일키움통장·청년희망키움통장은 2.1~2.18(18일간)까지, 희망키움통장 II, 청년저축계좌는 2.1~2.19(19일간) 1차 모집을 실시(연10회 분할모집)하며, 희망키움통장 I·희망키움통장 II·청년희망키움통장·청년저축계좌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내일키움통장은 지역자활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희망키움통장 I은 근로소득이 4인 가구 기준 113만9,000원 이상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가입 가능하다.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에 비례해 매월 최대 64만6,000원(4인 가구 기준)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3년 만기 후 본인 저축액과 근로소득장려금을 포함해 최대 2,757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 II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차상위 계층이 가입 가능하며,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간 저축액교육(4회) 및 사례관리(6회)를 이수하면 3년 만기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내일키움통장은 신청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 사업단에 성실 참여하는 자가 신청 가능하며, 가입자가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 이내 취·창업할 경우 정부 지원액을 포함하여 최대 2,3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수급 청년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총 소득의 45%를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지원한다. 3년 이내 취·창업시 정부지원액을 포함하여 최대 2,31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은 청년저축계좌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차상위 청년으로, 3년 동안 저축액교육 3회 이수하고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하면 최대 1,4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주민복지과 자활지원계(620-6857~8)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의회, 제241회 임시회 폐회

남원시의회(의장 양희재)는 20일 제241회 임시회에서 2021년도 시정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고 남원시장 제출 및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과 결의안 등 총 13건을 처리하고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20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남원시 사립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안' 외 7건의 안전과 수정 가결한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남원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수정 가결한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또한 이명진 의원 등 전체 의원이 발의한 '이동학대 예방과 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개선안 마련 촉구 건의안'과 박문화 의원 등 의원이 발의한 '일반·개인택시기사 등 재난지원금 형평성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하고, 이환주 남원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남원시 주요업무 보고를 받은 후 본회의를 폐회했다.

한편, 남원시의회는 오는 3월 3일부터 3월 1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42회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건의안 등은 남원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민 취업역량 강화 돕는다

취·창업 관련 교육비 최대 100만원(중·고등학생 50만원) 지원

순창군이 올해도 중·고등학생을 포함한 군민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취·창업 관련 교육비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군에서 운영하는 직업교육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직업교육을 지원해 관내 구직자의 취업률을 높이고자 마련했으며, 취·창업과 관련된 교육을 수강할 경우 1인당 1과목 최대 100만원까지(중·고등학생 최대 50만원)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으면서 취·창업 관련 교육을 희망하는 군민으로, 사업참여 희망자는 수강 시작 전 수강 신청서를 미리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 수강 후에는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출석률이 80% 이상이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자부담은 수강료의 50%(중·고등학생 20%)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

드 등 국비로 지원되는 유사사업 참여자는 교육비 중복지원이 불가하지만 타일, 도장, 도배 등 건설·건축분야와 캠퍼스 분야에 한해 관련 자격증 취득 시 100만원의 인센티브는 지급된다.

수강 가능한 과목은 건설·건축 분야, 바리스타, 미용, 네일, 요리 등 취·창업과 관련한 전 분야다. 단, 요양보호사·사회복지·온라인 교육 및 언어교육과 관련한 교육과정은 제외되며, 교육기관은 지역적 제한 없이 선택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여 관련 신청서류를 군청 경제교통과 일차리 창출계좌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심민 임실군수가 20일 자치분권 2.0시대 준비를 위한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

심민 임실군수,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동참

심민 임실군수가 20일 자치분권 2.0시대 준비를 위한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

심 군수의 이번 챌린지 동참은 이환주 남원시장으로부터 캠페인 지명을 받아 진행됐다.

이날 집무실에서 가진 챌린지 캠페인에서 심 군수는 "하루하루, 모두가 행복한 임실!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을 임실군이 함께 이뤄내겠습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이 본격 시행됨을 계기로 군민과 함께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 군수는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할 다음 참여자로 전준성 진안군수, 진남근 임실군의회 의장, 이인영 임실경찰서장을 지명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심민 임실군수가 20일 자치분권 2.0시대 준비를 위한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

심 군수의 이번 챌린지 동참은 이환주 남원시장으로부터 캠페인 지명을 받아 진행됐다.

이날 집무실에서 가진 챌린지 캠페인에서 심 군수는 "하루하루, 모두가 행복한 임실!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을 임실군이 함께 이뤄내겠습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이 본격 시행됨을 계기로 군민과 함께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 군수는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할 다음 참여자로 전준성 진안군수, 진남근 임실군의회 의장, 이인영 임실경찰서장을 지명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차세대 신규장비 도입

순창군이 비대면으로 홀몸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차세대 신규장비를 도입해 응급상황에서의 대상자 안전확인 및 고독사 예방에 힘쓰고 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최신 ICT 기술을 도입해 태블릿PC 기반의 게이트웨이, 응급호출기, 화재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등의 센서를 통해 독거 어르신이 집안에서 화재나 낙상, 건강상의 이상이 발생할 때 실시간으로 소방서(119 호출)에 연계해준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소규모 주민숙원·수해복구사업 시행

남원시가 올해 사업비 111억원을 투입해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 및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마을 기반시설, 마을회관 및 모정 등의 정비를 목적으로 분청과 23개 읍면동에 총 364건의 사업 시행을 통해 생활불편 사항을 적시에 해소, 주민들이 느끼는 사업만족도와 생활행복지수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남원시는 2021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담당공무원의 자체 설계 및 설계용역업체 등을 통해 사업 대상지 현지 답사 및 측량을 시행하고 있으며, 설계 추진 시 주민의견을 최대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20년 8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소규모시설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30개소 피해지역의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유형성 시민소통실장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공사를 영농철과 정마철 이전 완료를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